

2-28. 부산 금정산의 곤충군집과 도시화 경향

최문보*, 문태영

고신대학교 법/보전생물학연구소

금정산은 금정산맥의 남단을 마무리하는 큰 산이다.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내의 금정산의 남측 사면은 공원관리적인 측면에서 식재와 벌채가 행해지고 도로가 관통되고 답압에 의해 많은 목본식물들의 지하근(地下根)이 지표에 드러나는 등으로 인간간섭이 심하여 도시화의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예이다. 이 지역에서 곤충군집의 구조와 도시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결과 총 16목 99과 264속 306종의 곤충이 기록되었는데, 각 해당되는 목별로는 매뚜기목은 검은다리실베짚이, 갈색노린재, 끝검은매미충, 모래사장먼지벌레, 점박이땅벌, 검정파리 sp, 자나방 sp 등이 우점군에 속하는 종으로 나타났다. 이 우점곤충군의 구성은 대체로 그 분포가 전국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종들로 야산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향이다. 결국 산중턱까지 건물이 들어서고 극심한 답압과 간벌의 영향이 도시영향권의 물리적 특징이라면, 저지대의 곤충들이 산의 수직수평영역을 균일하게 점유하여 우점종군의 세력이 극대화되고 나머지 종들은 세력이 취약해지는 현상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